

나주역사 내년말까지 2배 규모 증축



나주역사 증축 조감도

285억 투입 주차장 등 대폭 확대

생산 467억원·고용효과 210명

광주 송정역부터 목포를 잇는 호남고속 철도 2단계 노선의 주요 역인 나주역사가 2배 규모로 증축된다.

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에 따르면 나주역사(연면적 2185㎡)를 4438㎡ 규모로 키우는 증축 공사에 들어갔다.

증축되는 나주역사는 전선고도와 나주 평야, 나주 배 등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한 디자인으로 탈바꿈한다. 철도공단은 사업비 285억원을 투입해 지상 4층에 엘리베이터 4대, 에스컬레이터 6대의 승강설비를 갖춘 건축물로 지을 예정이다. 주차장도 기존 75면에서 239면으로 늘리고 나주역 동서를 24시간 연결하는 보행로도 신설한다.

증축 공사가 마무리되면 혁신도시 조성 과 16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계속 늘고 있

는 나주역 KTX, SRT 이용객 수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공단은 나주역사 증축으로 약 467억원의 생산유발과 21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관계자는 “나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나주역사 공사를 내년 말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난 3월 열린 '2017년 봄철 내 나무 심기' 행사에서 어린이가 나무를 심고 있다. <나주시 제공>

잇단 잡음...나주시 무능한 환경행정 빈축

폐기물처리시설·열병합발전소 수천억원 들이고도 파행 운영
폐기물처리분담금 떠안고
혁신도시 난방 공급 차질 우려

나주시가 추진중인 환경 정책에 대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나주·화순 광역자원화 시설은 성능미달, 가동중단, 경찰 수사에 이어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관리 능력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열병합발전소 문제도 지역민들과 한국지 역난방공사 간 갈등으로 정상적 가동에 차질이 우려되는데도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자칫 혁신도시 내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민들에 대한 난방 에너지 공급 차질 뿐 아니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처리분담금도 떠안게 될 처지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무능한 관리 능력 드러내=1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2차 성능시험 결과, 애초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처리용량의 경우 설계기준(1일 130t 이상)에 못 미치는 100.6t(평균)으로 조사됐고 고형연료 생산율도 설계기준(40% 이상)에 못 미치는 28.4%에 불과했다. 불연물 생산율(설계기준 40% 이하)도 51.7%에 달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핵심 설비들의 성능도 미흡했다. 가연물 분쇄기는 투입되는 폐기물을 기준으로 시간당 7t을 처리해야 하지만 3.7t밖에 처리하지 못했고 파쇄기도 적정 파쇄 기준(80mm)에 미치지 못했다. SRF 성형기도 일시 가동정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노출됐고 부적합 폐기물이 반입되는 일도 발생했다고 나주시는 분석했다.

결국 지난 2014년 195억원(국비 97억 5000만원·나주시비 53억6000만원, 화순 군비 43억9000만원)을 들여 시설을 들어 놓고도 혁신도시를 비롯, 나주·화순지역

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관리 능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정상적 가동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처리분담금을 내야할 처지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단순 소각·매립해 영구 폐기하는 경우 폐기물처리분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료를 공급해야 할 열병합발전소가 주민·난방공사 간 갈등을 빚고 있어 정상 가동으로 이어질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열병합발전소...겨울철 난방 차질 우려=나주 열병합발전소는 30만㎡ 이상 택지가 조성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무설치대상인 점을 감안, 소각장 등을 대신해 2200억원이 투입될 지어졌다.

혁신도시 인근 시·군 나주·화순, 순천·구례, 목포·신안 등 3개 권역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를

활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 혁신도시에 공급하는 ‘자원순환경 에너지도시’를 구축하자는 취지였다.

정부와 전남도 등은 지난 2007년께 혁신도시 내 소각장을 대체하는 SRF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쓰는 보일러(첨두부하 보일러 27)를 포함하는 발전소를 건설, 여기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8(LNG)대 2의 비율로 혁신도시에 공급기로 했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8월 시운전을 시작, 12월 중순해 정상 가동에 들어가도록 했지만 협약과 다른 연료 반입 문제와 LNG 보일러만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지역민 민원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열병합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할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도 설비 성능이 미흡한데다,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연료 공급도 어렵게된다는 점에서 혁신도시 내 난방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수백억, 수천억원을 들여 만들어놓고도 정상적 운영을 못하는데 따라 나주시의 행정력과 문제 해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 올만하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시민들 새 천년 비전 만들기 머리 맞댄다

9일 나주시민 원탁회의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도

나주 지역민들이 새로운 천년을 이끌어 갈 비전을 만들는데 머리를 맞댄다. 나주시는 오는 9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 5회 나주시민 원탁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내년 전라도 정명 천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새로운 천년을 위해 나주가 추구할 미래상과 지역 발전 비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정책 발굴에 시민들을 직접 참여토록 하는 행사다. 자치단체 입장에서 ‘시민들 스스로

제안한 정책을 반영해 추진한다’는 취지로, 시민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책을 제시해 반영토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회의는 참가자들 전원이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뒤 분석·설득 과정을 거쳐 투표로 최종적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의 찬란했던 역사와 정신을 이어받은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희망찬 미래 청사진을 그려가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열린 시민원탁회의에서 참가한 시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한편, 나주시는 4차례 원탁회의를 통해 ▲나주의 소동행적 강화 전략 ▲내가 꿈꾸는 10년 후 나주 ▲나주교육 이렇게 바뀌주

세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우리 동네 이야기를 주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혁신도시 이주민 직접 나무 심고 가꿔요

11일 가을철 나무심기 행사

시민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나주시 관계자는 “도시 녹지 공간을 최소 10% 확충, 녹지와 도심이 어우러지는 도시 건설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녹색도시 나주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스마트미디어 스테이션의 LED 외벽에서 상영되는 영상물. <나주시 제공>

나주 ‘스마트미디어 스테이션’ 개관

LED 활용 문화갤러리

나주 ‘스마트미디어 스테이션’이 지난 30일 개관,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미디어 스테이션은 외벽 투명전광(LED)유리를 통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최신기술을 장착한 컨테이너 형태의 시설이다. 나주시는 지난 6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콘텐츠 기반 지역개발활성화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민의 독특한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었다. 협약의 결실인 스마트미디어 스테이

션은 6억원(나주시 3억, LH 3억)을 들여 2층(가로12m·폭4m·높이6m) 규모로 조성됐다.

1층은 빛가람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 휴식 공간 및 일자리 정책 홍보실로, 2층은 나주를 대표하는 천연염색작품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갤러리로 활용된다. 야간에는 LED외벽을 활용, 나주시 홍보영상이나 미디어아트 작품 등이 상영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민을 위한 문화향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전국학교 옥상 2500곳 설치확정·관공서 설치

광주광역시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 / 서울 노원구청 / 운양동·소룡호텔 / 주월동·성관여어린이집, 주월동·노스페이스건물 / 봉선동·반석물산업건물 / 내방동·내방교회 / 중흥동·진미식당옥상 / 쌍촌동·원도식육옥상, 임미자전통김치, O당구정건물, 힐스테이트옥상 / 화정동·노다지건물 / 목포·한가죽식물, 순천·화이트옥상 / 월곡동·은누리마트 /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외 300곳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해가온에너지 Hanwha Q CELLS
세계판매 1위 / 25년 출력보증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